석화업계, 원가부담·공장중단 이중고… 수익성 악화 불가피

구조개편 와중 전쟁리스크 겹쳐
수급차질 단기간에 해소 어려워
주요 업체, 실적부진 우려 확산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시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개편 와중에 중동산 나프타 공급 차질 장기화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와 공장 가동률 하락이라는 이중고까지 겪으며 전례없는 위기국면에 몰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고가 원재료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이전 확보한 저가 원료가 소진되면 상승한 나프타 가격이 원가에 본격 반영되지만 에틸렌 제품 가격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NCC의 가동 중단과 생산 조정까지 이어지며 실적 하방 압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부터 여수공장 NCC 대정비 작업에 돌입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당초 다음 달 18일로 예정했던 보수 일정도 약 3주 앞당겼다. LG화학도 지난 23일부터 여수 NCC 2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여천NCC 역시 올레핀 전환 공정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량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의 2분기 영업적자를 1880억원, 롯데케미칼을 1148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수급 차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도 러시아산을 포함한 비중동산 나프타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체 물량 조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 자체가 빠듯한 데다 스팟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이고 실제 반입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물류 시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국내 나프타 수급은 당분간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적과 운송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수급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물량을 높은 가격에 추가 확보하더라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사이 전쟁이 끝나면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업체들의 실적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강관업계, 할인율 축소 방식 가격인상 나서

내달 출하분부터 할인율 5~7% 축소
에너지용 제품 중심 사업재편 지속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강관업계가 4월 출하분부터 할인율 축소 방식의 가격 인상에 나선다. 원자재와 전력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할인 경쟁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제강, 넥스틸 등 배관용 강관 업체들은 4월 출하분부터 제품 할인율을 5~7%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다. 원가 부담 확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배관용 강관의 주요 원재료인 열연 유통가격은 톤당 86만~87만원까지 상승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기요금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전분기와 같은 +5.0원/kWh로 유지했다.중동 지역 군사 충돌 여파로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향후 전기요금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관업계는 공급과잉과 유통 경쟁, 전방 산업 수요 부진이 겹치며 높은 할인율이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보여왔다.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아제강의 지난해 강관제품 매출은 1조3663억원으로 전년보다 18.9% 줄었고, 넥스틸은 5438억9900만원으로 1.4% 감소했다. 휴스틸도 지난해 매출이 6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줄었다.

수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재고 증가, 프로젝트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비미주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이다. 국내 역시 건설경기 위축으로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생산거점 다변화와 에너지용 제품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영국 법인을 통한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공장 건설과 함께 베트남·UAE·미국·이탈리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중소구경 강관, SAW 후육강관, 스테인리스 대구경 후육강관, 유정용 강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넥스틸은 미국 판매·생산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극저온 인성강관 개발과 생산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휴스틸은 미국·캐나다 법인 운영과 대구경 강관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해상풍력과 송유관 시장 진입을 추진하며 라인파이프와 유정용 강관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관 산업은 주요 수요처인 석유·가스 등 에너지 산업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시에 조선·자동차·기계·건설 등 전방 산업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한화오션, 텍솔마린 등 캐나다 기업협력 확대

CPSP 수주전

캐나다 '산업·경제적 기여도' 승부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현지 협력망 구축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인 독일의 정부 대 정부(G2G) 공세에 맞서려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CPSP 수주를 위해 캐나다 현지 5개 기업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다. OSI마리타임시스템즈, EMCS인더스트리즈, 텍솔마린, 자스트람테크놀로지스, 커티스라이트 등으로 항법부터 탐지·전력·유지보수까지 잠수함 작전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를 고루 갖췄다.

캐나다 전자 항법·전술 시스템 기업인 OSI마리타임시스템즈는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배치-II'에 전자 항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저 지형과 항로를 디지털로 구현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과 경로 설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EMCS인더스트리즈는 장기간 해수 노출로 인한 선체 부식과 해양 생물 부착을 막는 역할을 맡고, 텍솔마린은 전력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를 담당한다. 자스트람테크놀로지스는 현지 조선업체·해군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용 역량을 뒷받침하며 커티스라이트는 소나(음파 탐지기)를 선체 밖으로 전개·회수하는 장비인 예인 소나 운용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 같은 현지 협력 확대는 CPSP 평가에서 캐나다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어렵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반응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캐나다와 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속한 독일이 G2G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주요 그룹, 차량 요일제 도입 등 에너지 절약 팔 걷어

석유·가스 수급 불확실성 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차량 5·10부제 실시와 함께 그룹사 차원에서 제조 현장의 에너지 제어와 출장 최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 그룹사에 차량5부제를 실시한다. 기존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평일, 휴무일, 중식시간, 야간 등 전기 사용 유형을 구분해 전 사업장 에너지 제어 조건도 더욱 강화해 전기 사용량을 감축시킨다. 국내 출장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해 업무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 26일부터 차량 10부제 시행과 함께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근 시 PC와 모니터 전원 차단, 실험 장비 대기전력 차단 등 생활 밀착형 절감 캠페인도 전개한다.

SK그룹은 30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과 냉난방 설정온도 기준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행하거나 3~4층 이하의 저층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LG도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한다.

한화그룹 역시 국내 모든 계열사와 사업장에서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GS그룹은 차량 5부제를 HD현대는 차량 10부제를 자율 참여 방식으로 도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캐어유 "키오스크 연습해보세요"

LG 이지 TV '캐어유 서비스' 선봬

'캐어유 서비스' 실행 화면. /LG전자

LG전자가 LG 이지 TV로 매장에 가기 전에 키오스크 사용법을 미리 연습해 보는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케어 기업 ㈜캐어유와 손잡고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TV인 LG 이지 TV에서 키오스크 주문 연습을 할 수 있는 '캐어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시중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복잡한 화면 구성과 낯선 결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객 목소리에서 착안했다. LG 이지 TV를 이용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키오스크 사용을 연습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더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캐어유 서비스는 ▲햄버거 가게 ▲카페 ▲푸드코트 등 3가지 일상적인 키오스크 사용 환경들을 실제처럼 구현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